

행정안전부·해양수산부·한국섬진흥원 협정  
2023년 1월 올해의 섬  
전라남도 신안 가거도

섬과 섬,  
미래와 세계를 잇는  
한국섬진흥원이

「한국의 섬,  
세계의 섬」으로  
내일의  
새로운 창을 엽니다.

Vol.01



02



“한국의 섬이  
미래를 잇고,  
세계로 나아갑니다”

한국섬진흥원 오동호 원장

안녕하십니까.

한국섬진흥원 오동호 원장입니다.

‘국토의 축소판’ 섬은 교육, 문화, 복지, 의료 등 생활인프라 구축이 더디지만, 위기는 가장 빠른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섬진흥원 연구 결과, 20년 후에는 국내 섬 인구가 18.1% 감소하여 약 65만 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유인섬 20개 섬이 무인섬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국섬진흥원의 개원은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 섬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자, 정부가 설립한 세계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번에 창간한 종합간행물 이름을 「한국의 섬, 세계의 섬」으로 명명한 것도 세계에 우리의 섬을 알리고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위기 속에 기회는 찾아옵니다. 우리나라 섬 정책의 큰 변화는 한국섬진흥원의 개원과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우리의 섬’은 대표적인 청정(淸淨), 힐링 자연친화형 명품관광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섬은 문화와 관광, 해양, 생태자원이면서 명실상부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입니다.

하지만 섬에 대한 정보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섬 주민, 섬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을 위한 종합간행물 「한국의 섬, 세계의 섬」을 발간합니다. 이 간행물에는 한국섬진흥원이 추진한 다양한 사업, 연구과제 등 기관 주요 활동들이 수록됩니다. 또한 섬 관광 활성화 및 한섬원 브랜드 구축을 위한 섬 관련 종합 정보들이 담깁니다. 한국의 섬을 세계에 알리고, 세계의 섬을 통해 우리의 섬이 한 단계 더 성장, 발전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대한민국의 섬이 나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미래를 잇는 섬, 세계로 나가는 섬’이라는 우리 한국섬진흥원의 비전처럼, 섬은 영토의 끝이 아니라 세계로 나가는 출발점입니다.

전 임직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한국섬진흥원은 섬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섬의 희망찬 미래를 그려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섬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섬 전문 연구기관’으로 거듭나 그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